“예술, 수행? 그냥 일상일 뿐이야”

13번째 개인전 연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

특별한 서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격외의 작품 앞에 서면 압도되고, 또 감화된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 사진)의 휘호와 선묵을 대하면 ‘도(道, 깨달음)는 하나로 통한다’는 말을 수긍할 수 있다.

6월 8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는 성파 스님의 서예전 개막식이 열렸다. 14일까지 진행된 서예전에는 스님이 평소에 틈틈이 써온 선묵과 휘호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길이가 가로 32m에 달하는 〈금강경〉은 ‘대작’이라고 말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성파 스님은 별 다를 게 없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평소 생활하면서 틈틈이 써온 것들입니다. 〈금강경〉도 언제까지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나면 쓰고, 다른 일을 했다가 다시 시간나면 쓴 작품입니다. 저에게는 일상 생활일 뿐입니다.

전시회의 목표도 특이했다. 흔히 말하는 문화포교나 작품을 통해 불교 사상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의 대답은 ‘비판과 경책’이었다. 이유도 명료했다. 더 발전하기 위함이다.

“글씨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받기 위해 전시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판과 경책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비판과 경책이 있으면, 분발심이 생기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어요. 더 배울 수 있고요.”

흔히 ‘서화일원(書畵一源)’이라고 했듯이 ‘수행과 예술이 하나’로 보여지는 스님의 작품 세계를 물었다. 곧바로 답변은 법문이 돼 돌아왔다.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수행자에게 일상은 수행이죠. 수행을 따로 하고 예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평범한 생활입니다. 내 일상 생활의 소산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세인들이 붙인 것이지, 난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수행도 예술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기실, 스님이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 한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다. 산수화, 선묵, 서예, 천연염색, 감지금니사경, 옻칠불화, 16만 도자대장경 조성, 시조문학상 30년 운영 등 그 분야가 방대하다. 이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스님의 철학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또한 이런 일상은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는 원력으로 귀결된다.

14일까지 서울 한국미술관서
평소 쓴 필묵 100여점 전시
32m에 달하는 금강경 ‘눈길’
“비판해주길, 그래야 분발해”

서예·옻칠·도자·염색까지
전통문화 지키는 데 평생 매진
“내년엔 뭐 할지는 나도 몰라”



“내가 사는 곳이 전통 사찰입니다. 머리 깎고, 먹물옷 입는 것은 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방식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전통입니다. 모두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요.”

스님은 염색과 옻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연이어 설명했다. 염색은 자연의 색을 찰나에 잡아내는 작업이라고 했고, 옻칠은 불교계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라고도 했다.

“천연염색은 초목의 염료를 추출해서 옷감 등에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진은 빠르게 지난 것을 포착하는 것이죠. 염색도 찰나의 색을 끄집어내서 환생시키는 것입니다. 옻은 접착성이 강하고 활용했을 경우 방부, 방염, 방수의 효과를 가져오죠.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옻을 많이 썼어요. 옻칠 문화는 곧 불교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답변은 명료했다. “모르겠다”였다.

“내년에는 나도 무슨 전시를 할지는 몰라요. 여러 개가 서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발전과 배움을 원하는 성파 스님에게서 푸르디 푸른 소나무와 같은 정신을 본다.

신성민 기자

“신진작가 발굴… 불교미술 발전 초석 다질 것”

법련사 불일미술관 공모 결과… 12명 작가 선정

전통회화·설치미술 등 ‘다채’
6월~12월 내내 릴레이 전시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 발굴을 통해 불교미술 진흥에 나선다.

불일미술관은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진작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린 공모전에는 국내외 작가 50여 명이 지원했고 이중 작품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12명(단체 포함)의 작가가 선정됐다.

선정 작가는 조영아(회화), 강현정(회화), 이지민(회화), 이상의(옷칠 회화), 권금영(종합), 윤지웅(종합), 정은지(도자),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회화), 핑크붓다(종합), 용인대 불교회화 그룹전(회화) 등이다.

학예실장 구담 스님은 “처음에는 6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작가들이 상당수였다”면서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 인원을 두 배로 늘렸다. 12명의 작가·팀에게 6개월 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전시의 시작은 6월 14일 개막하는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가 알린다. 그룹전은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조영아(6월 28일~ 7월 11일) △이지민(8월 2일~15일) △강현정(8월 2일~15일) △핑크붓다(단체, 9월 1일~14일) △용인대 불교회화연구소(단체, 9월 17일 ~27일) △이상의(10월 4~17일) △윤지웅(10월 19일~11월 1일)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 그룹전(단체, 11월 7일~ 20일) △권금영(11월 22일 ~12월 4일) △정은지(12월 6일 ~19일) △전통회화 그룹전(단체 12월 6일~19일) 등의 일정으로 전시가 이뤄진다.



불일미술관 신진작가로 선정된 윤지웅의 작품 ‘무제’.

이번 공모전에 대해 선정 작가들은 고마움과 함께 불교미술가에 대한 불교계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핑크붓다 조수연 대표는 “일반 갤러리에서는 불교미술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일미술관이 신진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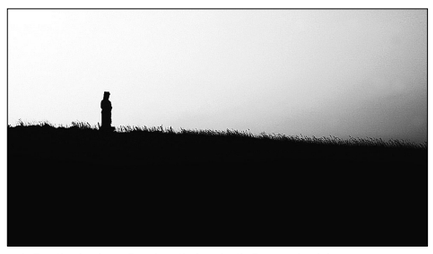
이어 “공간 대여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대 비용은 작가의 몫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면서 “불교계 종단과 사찰에서 불교미술작가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올해 처음 신진작가 공모전을 개최했다. 작가 발굴을 통해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신진작가 공모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또한 지원금 등 작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흑백으로 담아낸 백령도의 진면목

최용백 작가, 6월 15~21일 사진전



최용백의 ‘몽운사 해수관세음보살상(60×80cm, 2012)’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서해 5도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어장이다. 또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기도 한다.

불교 무형문화재를 주로 렌즈에 담아온 최용백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에게는 백령도는 불안한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다. 그의 렌즈는 섬의 현상이 아닌 생래적인 존재에 주목한다.

6월 15일부터 21일 가나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리는 최 작가의 사진전 ‘백령도, 평화를 품다’는 이를 잘 표한다. 흑백으로 대비되는 실루엣으로 백령도를 포착한 최 작가는 쇠와 불이 아닌 안식과 치유의 백령도를 사진을 통해 말하고 있다.

최 작가는 사진전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백령도 구석구석을 다녔다. 그렇게 발품을 들여 찾아낸 찰나의 풍광들은 수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가는 “백령도 자연의 숨결을 통해 전쟁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36-1020 신성민 기자

중광·석정·수안스님 선서화를 만나다

진경갤러리, ‘禪書畵 3人展’

불교전문 갤러리 ‘진경’(관장 심진택)이 ‘선서화 3인전’을 연다.

전시기간은 6월 1일~20일이며 중광·석정·수안 스님의 작품 30여 점을 특별 전시한다.

중광 스님은 ‘걸레 스님’, ‘광인’을 자처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선화(禪畵)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피카소’라고도 불렸다. 석정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이며 불화장(佛畵匠) 대불모(大佛母)라고 불렸으며 수안 스님은 현시대 선화의 대가라 불린다.

심진택 관장은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세 분 스님들의 경지에 도달한 원숙함과 조화로움이 담겨 있는 감동의 선 세계(禪世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갤러리는 지난 2014년 7월 5일 개관기념으로 만공, 경봉, 성철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선서화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051) 747-2260 하성미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 발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업보·님이오는 소리·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산불원
051-231-6455 / 010-9049-00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106937-04-001891 다산불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